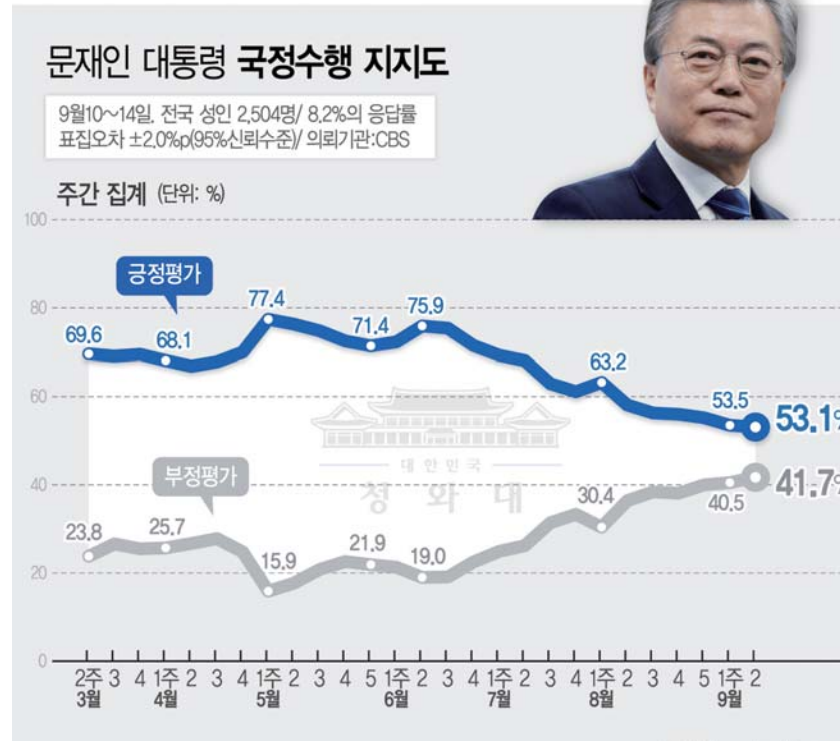


文대통령 지지율 남북 '훈풍' 에도 53.1%

6주 연속 하락세...통계청 고용쇼크·중부세 강화 등 부동산정책 영향

민주 40.5%·한국 20.9%·정의 10.4%·바른 6.9%·평화 2.4% 順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주 대비 0.4%p 떨어진 53.1%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9월 2주차 주간

집계(95% 신뢰수준·표본오차 ±2.0%p, 응답률 8.2%)에 따르면 전체의 53.1%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지난 주간집계 대비 1.2%p 오른 41.7%(매우 잘못 26.5%·잘못하는 편 15.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0.8%p 감소한 5.2%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경기·인천과 6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오른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 충청권, 50대와 40대, 무당층에서는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7일 일간집계에서 54.8%를 기록한 후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확정됐음에도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10일 53.2%로 하락했다. 또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 및 여야 5당 대표에 남북 동행을 요청했으나 의장단과 일부 야당에서 즉각 거절 의사를 표하며 논란이 일었던 11일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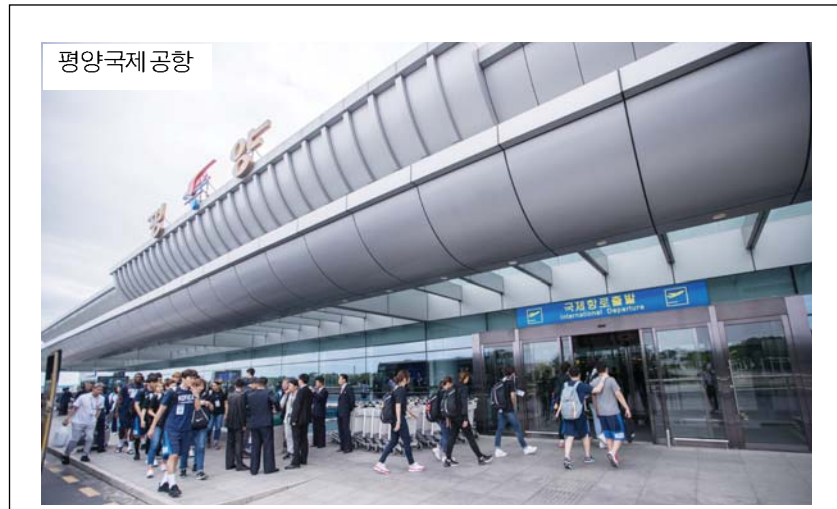
52.5%까지 내려앉았다.

다만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있었던 12일에는 56%로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고용쇼크'를 담은 8월 고용동향 보도가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13일에는 54.9%로 다시 하락했다. 아울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비롯한 남북관계 진전 관련 소식이 전해진 14일에도 52.5%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주간집계 대비 0.1%p 오른 40.5%를 기록했다. 한국당(20.9%)·정의당(10.4%)·바른미래당(6.9%)·민주평화당(2.4%) 순으로 각각 민주당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6.8%였다.

한편,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흡하다'(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이 31.9%로 집계됐다. '과도하다'(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9%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보는 '평양 정상회담' 文대통령 어떤 곳 방문할까?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떤 곳을 방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첫 발을 내디딜 장소는 평양국제공항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8시40분경 경기 성남시 서운공원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평양국제공항에 오전 10시경 도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만남의 첫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모델링(구조변경)을 마친 평양국제공항은 평양시내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평양 시내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2015년 현대식 대규모 건물인 제2청사를 건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과 달리 제2청사 쪽 활주로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후 바로 문 대통령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빈관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묵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정상회담도 진행될 바 있다.

백화원 영빈관은 화강암으로 지어진 3층 건물로 국민급 외국 사절의 전용숙소로 사용된다. 분수대가 설치된 인공호수가 마련됐으며 앞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건물 뒤편으로 숲이 있어 조경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복층은 지난 3~6월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마이크 플레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7월 방북해 이곳에 머문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두 차례의 대북 특사단 방북 당시 노동당 내부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기 때

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노동당 청사에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평양시내에 있는 육류 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육류 아동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 의료봉사 시설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신축된 건물이다. 6층 규모 건물에 180여 명의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은 평양 문수구역에 있는 북한 최고의 전문음악인 양성대학이다.

첫날 회담 종료 후 환영예술품 공연 장소와 만찬 장소도 관심이 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북 첫날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전통 무용·기악곡을 쥘여진 '평양성 사람들' 공연을 관람하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목란관에서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목란관은 5000명 규모의 외빈과 고위층 전용 연회장이다.

이어 둘째 날 오전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곳은 북한 청소년의 예술체육, 과학교육 분야의 방과 후 활동을 교류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4~2015년께 개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해 화합활동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예술공연을 봤다.

둘째 날 오찬은 평양 육류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육류관은 평양 창전동 대동강 기슭에 위치한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점으로 대동강 육류교 옆에 있어 육류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2층짜리 한옥 건물로 북한 간부연회와 외국인 접대장소 등으로 이용된다.

여야, 정경두 청문회서 '주적' 공방...현역 군인, 장관후보 헌법 위반 논란도

야당 "주적 소신 실망" 여당 "조금 불필요한 논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개념과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 표현이 실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가 "삭제 추진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객관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후보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다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 또는 조정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으로만 (적이)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영토, 영공, 영해에 위협을 가하고, IS 테러, 사이버 안보, 해킹 등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표현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적' 개념에 대한 맹공은 이어졌다. 서정원 무소속 의원은 "북한은 우리 적이다 군인으로서 북한은 분명히 주적이라고 본다"면서 "(정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보니까 (주적에 대한 소신이) 어둠어둠(우물쭈물) 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과 국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적이지 않느냐"면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침범하면 적이다. 주적에 대한 국방부 논쟁이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싶다"고 정 후보자를 감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일본도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도 상시 전쟁체제지만 주적을 어느 특정 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되는 게 헌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현역 장군을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무직 자리를 얻기 위해 동요하는 장군이 생길 수 있다"며 "현역에 있을 때는 정부의 정무직 인사에 전혀 눈독 들이지 말고 본인 임무를 충실히 하라고 관행 원칙이 세워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군인 신분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한국당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현역군인을 장관 후보로 임명하는 행태 자체가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 중에 이런 곳이 어딤느냐"고 청와대를 향



해 쓴소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문회 중이지만 '헌법 정신 위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 위반이고 적폐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장관이 안 돼 폐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 중에 이런 곳이 어딤느냐"고 청와대를 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